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3년 5월 19일(금)  
--(음력 3월 30일)--  
Пятница  
19 мая 2023г.  
№ 19 (12036)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국제 박물관의 날은 매년 5월 18일에 기념한다. 국제 박물관 회의 (ICOM)가 1977년에 제정 한 기념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박물관은 박물관 외에 미술관 · 과학관 · 동물원 · 식물원 · 수족관 등을 포함한 것이다. 세계 공통의 테마가 정해져 각국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사할린 섬'체호브 책 문학미술박물관. (이예식 기자 촬영)

## 하병규 총영사, 사할린 방문

하병규 주블라디보스톡 한국 총영사는 지난 5월 15일~17일간 사할린을 방문하였다. 블라디보스톡 부임 이후 처음으로 사할린을 방문한 하 총영사는 코르사코프 망향의 탑 참배를 시작으로, 재외동포 및 교민 간담회, 사할린 주정부 인사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하였다.

특히, 하 총영사는 5월 16일 동포단체 임원진, 동포 언론사 대표 등을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 하였다. 이 자리에서 하 총영사는 금년 6월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이 사할린 동포들을 위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동포들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 하 총영사는 알렉세이 부투하노브 사할린 경제개발부 차관을 만나, 주유즈노사할린스크 출장소 이전을 협의하고, 사할린 한인사회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하 총영사는 이번 방문에서 코르사코프 망향의 탑, 강제징용 및 이중징용비, 조선인 학살사건 추모비 등 사할린 동포 추념지를 참배하였다.

하병규 총영사는 주브라질 참사관, 주시카고 영사, 주우간다 대사를 역임하고 2022년 7월에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에 부임하였다고 전해졌다.

(본사 가자)

(사진: 주유즈노사할린스크영사출정소 제공)



## 사할린 주, 2023년 마지막 수업일에 주류 판매 금지

2023년 마지막 수업 행사 기간 동안 사할린 주에서는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제한 조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지역 농업부의 보도부를 통해 제공되었다.

교육부는 지역 법률에 따라 일반 교육 기관에서 학기 종료 행사 당일 주류 소매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올해 학기 종료 행사일은 다음과 같다

- 2023년 5월 22일 - 돌린스크, 네벨스크, 노글리키, 오하, 포로나이스크, 토마리, 티몹스크, 홈스크,

- 2023년 5월 23일 -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아니와, 코르사코프, 쿠릴스크, 마카로프, 세베로-쿠릴스크, 스미르니흐, 우글레고르스크, 유즈노쿠릴스크.

이 금지 조치는 학기 종료 행사가 열리는 지역에서만 적용된다.

## 단신

### 사할린 국립대학교 신임 총장 임명

지난 12일, 사할린주립대학교 교직원들에게 신임 총장이 소개되었다.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사마르다크는 극동지역의 연해주 출신이다. 사할린 국립대 총장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극동연방대학교의 과학담당 부총장으로 재직했다. 물리학 및 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200편이 넘는 과학 논문을 저술했으며 국내외 연구 센터에서 다양한 과학 활동 경험을 쌓았다.

2020년 알렉산드르 사마르다크는 전 러시아 대회 "러시아의 리더들" 결승에서 "과학" 분야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그는 러시아 연방 대통령 산하 최고 인사 예비부의 "주지사 학교"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극동연방대학교 경영 아카데미와 총장 학교를 졸업했다.

### 사할린주, 연방관구의 사회경제발전 최고 수준

RIA 평가 기관의 전문가들이 2022년 러시아 지역 개발의 주요 지표 분석했다. 그들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상황의 순위를 매겼다. 자세한 내용은 RIA 노보스티에서 보도했다.

순위는 재화 및 서비스 생산, 경제 내 고용, 소매업 매출, 수익성 있는 사업체 비중, 노동 연령 인구 사망률, 실업률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었다.

극동 연방관구의 대부분 지역이 마지막 순위에 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할린 지역은 극동 지역 내의 이웃 지역 중 가장 좋은 지표를 나타냈다. 사할린 지역은 러시아 지역 중 22위, 극동 연방관구 내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이는 1년 만에 세 단계 상승한 것이다. 사하 공화국(야쿠티아)은 러시아 연방 30위, 극동 지역 2위를 차지했으며, 연해주가 러시아 31위, 극동 지역 3위를 차지했다.

### 유즈노사할린스크-중국 하얼빈 노선 항공편이 6월 6일부터 재개

오로라 항공이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하얼빈으로 가는 국제선 운항을 재개한다. 중국 하이퉁장성의 수도로 향하는 항공편이 오랜 휴식 끝에 재개되는 것이다. 이는 해당 통신사의 언론 서비스를 통해 보도되었다.

"티켓 판매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얼빈행 항공편은 6월 6일 화요일부터 출발합니다. DHC-8-Q400 항공기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9시에 출발하여 8:55에 하얼빈에 도착합니다. 중국 출발은 10:05, 사할린 도착은 15:40입니다. 시간은 모두 현지 시간으로 표기합니다. 항공권 가격은 10,150루블리입니다."라고 오로라 항공측에서 설명했다.

새고려신문

## 2023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3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월 구독료는 606루블리입니다. 신문 인텍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편집부)



5월 18일은 국제 박물관의 날

역사를 보존하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신 야나 수석 관리인

<포베다(승리)>박물관 종합체에 서 수석 소장물 관리인으로 일하는 신 야나 젠나모브나(35세)에 대해서는 처음 김영희 주향토 박물관 소장물 관리자에게서 들었다. 똑똑하고 명랑하고 연구발표도 잘 한다는 칭찬이었다. 한번쯤 꼭 신문에 소개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기회가 되었다.

야나는 키가 크고 예쁜 젊은이다. 첫 인상과 말투가 참 좋았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 분이 자기가 하는 일에서는 정말 프로피'라는 생각이 들었다.

코르사코브 출신인 그는 일반 노동자 동포가정의 4대 부모사이에서 늦둥이로 태어났다. 위로 오빠 둘이 있고 큰 오빠와는 13세, 둘째 오빠와는 10살 차이가 난다. 어머니는 한 평생 판매원으로, 아버지는 크레인 운전기사로 일했다. 공부를 잘 했던 야나는 '국가 및 지방자치체 행정' 전공을 선택해 극동연방대학교 유즈노사할린스크 분교에서 공부를 했다. 2010년, 2011년인 4, 5학년 때 사할린주 문화부에서 실습을 했는데 그때 주내 문화유산, 주가 관리하는 기념물 등 관련 업무를 익히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대학 졸업논문으로 사할린주의 기념물들에 관한 주제를 택했

고, 특히 주향토박물관 자료를 많이 연구하고 이용하면서 박물관 관련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대학 졸업 후 야나는 향토 박물관에 취직했고 당시 이 박물관에 졸업논문 담당교수인 세르게이 페르부힌이 박물관 수석 연구가로 활약하고 있어서 운도 좋았다. 일을 깔끔하게 하는 스타일이어서 이곳에서 사무원, 소장물 기록과 직원, 소장물 관리자, 나중에는 소장물 기록회계과 과장으로 활약했다.

2016년, 야나는 여러 사람의 추천으로 사할린에 새로 생긴 <포베다> 박물관 종합체에서 수석(총) 소장물 관리인으로 부임되었다. 서른 살이 채 안 되는 나이에 이런 책임있는 일을 맡은 게 흔한 일은 아니다. 새 박물관 수석 소장물 관리인 후보는 주 문화부에서 점검과 임명을 하는 만큼 후보 심사가 엄격했다는 말이다.

규모가 큰 <포베다> 박물관콤플렉스는 박물관 2개(승리)박물관과 '러시아는 나의 역사'박물관)를 포함하고 있고 '승리'박물관 같은 경우 주로 1904-1905 러일 전쟁, 1941-1945 위대한 조국 전쟁 관련 전시관, 섬지역 군사 역사에 관한 상설 전시, 그리고 군사 장비 시뮬레이터, 3차원 파노라마 등을 갖추고 있다.

야나는 일에 대해 말할 때, 눈이



빛난다.

"소장물 기록 및 회계, 보관 및 복원은 우리 일입니다. 우리는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후손을 위해 역사를 보존하며 조상의 역사를 보존합니다. 소장물을 보관, 관리하며 모두를 위해 역사를 지키는 것이 마음에 듭니다."라고 신 야나 소장물 수석 관리인이 말했다.

그는 현재 직원 5명과 일하고 있다. 소장물 복원작업 담당 직원, 소장물 기록 및 회계 전문가, 소장물 관리자 등이다. 모든 작업이 높은 책임감을 요구하니 야나는 지도자로서 엄격한 스타일이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인간 관계를 따뜻하게 지키려고 한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상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직원들이 제 2의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분위기와 환경이 중요하고 업무에 관해서는 잘 따지는 편이지만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직원 다수가 저랑 같이 시작한 사람입니다. 다만 소장물 기록 및 회계 담당 전문가는 5번이나 바뀌었어요. 제가 원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을 오랫동안 구했어요. 드디어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3년째 저희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동료들은 책임감 높은 사람이고 서로 많이 돕고 있습니다."라고 야나가 말했다.

그는 주향토박물관에 있을 때 연구작업도 하고 하바롭스크,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에서 개최된 학술회, 세미나에서 발표도 했다. 지금은 말은 분야가 좀 달라서 연구보다 무기, 군사 장비 전문평가 등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가끔 '포베다'콤플렉스에서 발간하는 전문잡지에 기사를 내고 있다.

그는 기본 소장물은 물론 이동해야 하거나 임시 보관해야 소장물 등도 잘 챙겨야 한다. 올해만 해도 박물관은 10개 이상 이동전시회를 할 계획인데 소장물 책임은 그에게 달려있다.

보관하고 복원하고, 역사를 보존

하는 것에 몰두하고 있는 야나는 '착한 사람이 세상을 구하고 친절이 사람을 사람으로 만든다'고 믿고 정직과 친절을 중시하고 위선을 절대적으로 싫어한다. 그래서 그가 좋아하는 표현도 '받고 싶은 대로 사람을 대하라'는 것이다.

야나는 문제를 직접 해결해가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향이다.

중학교, 대학교 시절에는 농구와 탁구를 즐겼지만, 요즘은 그럴 시간이 없다. 특히 좋아하는 독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도 아쉽다. 야나는 현재 모든 자유시간을 22개월의 아들에게 바치고 있다. 개인 사정으로 혼자 키우게 돼, 아들이 9개월 때 육아와 근무를 병행해야 했다. 어머니는 야나가 33세때 돌아가셨고, 아버지와 오빠가 다른 도시에 살고 있으니 자기 자신만 믿고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들에게서 얻는 행복으로, 그는 어려움에 지지치 않고 밝은 미소로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 박물관 업무와 숫자를 좋아하고 체질에 맞는 일, 천직을 찾을 수 있어 운이 좋았다고 말하는 신 야나 젠나모브나가 정말 자랑스럽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사할린 <어린이 대표들의 축제>에 10,000명 이상 참가

사할린주가 '어린이 대표들의 활동' 러시아 유·청소년 활동의 대규모 기획인 <어린이 대표들의 축제>를 지원하게 된다. 교사와 지도교사의 날을 기념하는 이 행사에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비롯해 러시아의 8개 도시가 참여한다.

<대표들의 축제> 행사는 러시아 연방 교육부, 연방 청년 사업청, <어린이 대표들의 활동> 러시아 유·청소년 운동이 지원한다. 전국 행사에서 학생들은 국가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 제시할 수 있다. 교사와 지도교사의 해를 기념하는 축제의 주요 목적은 학생들이 어른들과 역할을 바꾸어 서로서로를 대상으로 교사와 감독자가 되고, 계몽적 마라톤, 애국적, 자선적, 환경보호 행사에 참가하는 데 있다.

이 축제는 5월19일(금) '피오네르(공산소년단)의 날'에 시작한다. <어린이 대표들의 활동> 기획은 소년단 지도활동으로서 교육과 선도의 공공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학생들은 <어린이 대표들의 활동> 기획의 근본적인 취지와 가치를 알게 되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자체 지역에서 11학년의 날에 참가한다.

사할린에서 축제 프로그램은 다양한 행사들로 풍성하다. <교육과 지식>코너는 사할린 대학의 총장이 함께하는 전략 구축 부문과 학교 교장들의 자문들과 함께 하는 도전게임이 있다. 환경보호 문제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은 토요일에 '고르니위즈두흐' 스포츠 종합단지에서 환경보호적 청소 및 정비 활동을 펼치면서 나무와 꽃을 심을 계획이다.

<애국심과 역사적 기억> 부문에서는 군인들이 진행하는 활동교실에 참여하고, 참전용사들과 만나며, '윤아르미(유청소년사관학교)' 학생들의 공연을 관람한다.

<문화와 예술> 부문에서는 미술작품 전시회를 감상하며, 사할린 예술가들의 공연과 연극을 관람한다. 별도로 관광코스 개발 문제를 연구할 예정이다.

<자원봉사자와 자선> 부문에서는 돈바스와 자포로주에 동

급생들을 위한 여름 독서용 책들을 수집하고, 특수군사작전 참전자들을 위한 발라클라바(복면)과 모기장을 제작할 예정이다. <국제관계>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은 아시아 국가들을 주제로 한 도전게임을 진행한다. <과학과 기술> 부문의 일환으로 드론 조립 활동교실이 준비돼 있고, 러시아 철도 '퀀토리움'을 방문, 로봇기술 수업이 예정돼 있다.

Более 10 тысяч человек присоединятся к «Фестивалю Первых» на Сахалине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ддержит масштабный проект Росси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детей и молодежи «Движение первых» — «Фестиваль Первых». Мероприятие, посвященное Году наставника и педагога, охватит восемь городов России, в том числе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Фестиваль Первых» проводи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свещения РФ,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Росмолодежь), Росси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детей и молодежи «Движение первых». На общероссийской площадке дети смогут показать, что они готовы взять на себ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будущее страны. Ключевой тренд фестиваля посвящен Году педагога и наставника: школьники поменяются ролями со взрослыми, смогут стать воспитателями и кураторами друг для друга,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х марафонах, патриотических,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х и экологических акциях.

Фестиваль стартует 19 мая, в День пионерии. «Движение первых» представит на общественное обсуждение программу воспитания и наставничества в вожатском деле. Участники фестиваля будут встречаться с интересными спикерами, выполнять квесты, проектировать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езные инициативы.

Программа фестиваля на Сахалине насыщена различными мероприятиями. В составе блока «Образование и знание» - стратегическая сессия с участием руковод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квест с советниками директоров школ. Интересующиеся вопросами охраны природы проведут экологический субботник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а также займутся посадкой деревьев и цветов. В рамках блока «Патриотизм и историческая память» состоится мастер-класс от военных, встречи с ветеранами и показате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воспитанников «Юнармии». Блок «Культура и искусство»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ыставку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работ, выступление сахалинских артистов и театральную постановку театра. Отдельно будет изучаться вопрос разработки туристических маршрутов. Участники

блока «Волонтерство и добровольчество» соберут для сверстников в Донбассе и Запорожье книги для летнего чтения, изготовят балаклавы и москитные сетки для участников СВО.

Молодые люди, интересующие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ми отношениями, пройдут квиз, посвященный азиатским странам. В рамках блока «Наука и технологии» предусмотрены мастер-класс по сбору беспилотников, посещение «Кванториума» РЖД, также уроки по робототехнике.

사할린의 치어리더들, 러시아 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12개의 메달 획득

5월 5일부터 9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린 치어리딩 전 러시아 선수권대회 결승전에 출전한 사할린의 선수들이 성공적으로 경기를 치른 가운데 이번 대회에서 러시아 스포츠 장인의 규범을 성취하고, 12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러시아 연방 대표선수에 포함되었다고 사할린주 스포츠부가 전했다.

모스크바 프리미어리스 축구 경기장에서 이번 대회에 전국 52개 지역들에서 온 7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경기를 치렀다. 3일간 치러진 경기에서 사할린을 대표한 선수들은 금메달 2개, 은메달 6개, 동메달 4개를 목에 걸었다.

이번 러시아 단체선수권 대회에서는 모스크바가 1위, 크라스노다르 변경이 2위 사할린주가 3위를 차지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홈스크에서 40명의 선수들로 구성된 사할린의 선수들은 국가대표팀에 들어갔다.

사할린주의 치어리딩 및 치어 스포츠연맹의 회장인 크리스키나 라흐는 러시아 스포츠 종목상 높은 경쟁을 고려할 때 이번 대회에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강조했다. 사할린의 선수팀은 조만간 노보시비르스크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 참가차 떠난다.

Сахалинские чир спортсменки завоевали 12 медалей на чемпионате и первенстве России

Островные спортсменки успешно выступили на чемпионате и первенстве России, а также всероссийски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чир спорту, которые проходили в Москве с 5 по 9 мая. Они завоевали 12 медалей, выполнили нормативы КМС и были включены в состав сборной РФ.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8면에 계속)

# 사할린 기업가들, 정부와 기업 간의 상호작용 개선에 주목 중

2022년에는 사업가들로부터 180건의 문의가 접수되었다. 당국과 비즈니스 커뮤니티 간의 피드백 덕분에 대부분의 문제는 사안별로 처리되고 있다. 오늘날 사할린 지역은 러시아에서 투자 환경이 가장 좋은 상위 5개 지역 중 하나이다. 사할린 기업가들은 비즈니스에 대한 행정적 부담이 줄어들고 유틸리티 연결이 크게 빨라졌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 같은 평가를 내렸다.

안드레이 코발렌코 사할린주 기업가 권리 보호 위원장이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의 회의에서 한 해 동안의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기업의 거의 모든 이의 제기는 재판 절차에서 처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거의 3분의 1이 법정으로 갔지만 지금은 5%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기업과 정부 간의 피드백 루프를 구축하기 위한 많은 노력의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사할린 주 정부 내 실무 그룹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은 지역 책임자가 직접 결정합니다."라고 안드레이 코발렌코가 말했다.

건설 허가 및 면허, 에너지 연결, 행정 부담 경감, 통신 서비스 확보, 기업이 정신 지원 등을 다루는 6개의 실무 그룹이 구성되었다.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은 해당 지역 시장이 매달 개최하는 투자 협의회에 상정된다.

"기업가들의 호소를 방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현재 대러 제재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리소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가들 또한 어려운 생활 환경에 처한 가족이나 돈바스의 사할린 주민들을 돌보아야 할 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국은 사업가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야 합니다."라고 왈레리 리마렌코는 강조했다.

사업가들은 특별히 제작된 피드백 플랫폼인 "Бизнес.Сахалин.онлайн"에서 질문을 할 수 있다. 작년에는 교통, 주택 및 유틸리티, 세금, 반독점, 토지 및 재산 관계에 관한 문의가 가장 많았다. 비즈니스에 대한 관리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청은 크게 줄었다. 작년에는 부분 동원된 기업가의 권리 보호라는 새로운 주제도 등장했다.

사할린 지역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작년에 사할린 기업가정신 개발 기금과 지역 경제개발부의 지원은 거의 두 배로 증가하여 10억 루블리를 넘어섰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당국의 노력은 기업가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할린 주는 투자 환경 평가에서 러시아 전체 지역 중 5위를 차지했다. 순위 결과는 지역 간 투자 경쟁을 촉진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 당국의 노력은 기업가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할린 주는 투자 환경 평가에서 러시아 전체 지역 중 5위를 차지했다. 순위 결과는 지역 간 투자 경쟁을 촉진한다.

#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봄의 제전(祭典) / 송찬호

마침내 겨울은 힘을 잃었다  
여자는 겨울의 머리에서  
왕관이 굴러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켜보았다  
이제 길고 지리한 겨울과의 싸움은 지나갔다  
북벽으로 이어진 낭하를 지나  
어두운 커튼이 드리워진 차가운 방에  
얼음 침대에  
겨울은 유폐되었다  
여자는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왕관은 숲 속에 버려졌다  
겨울은 벌써 잊혔다  
오직 신생만을 얻기 바랐던  
재투성이 여자는  
봄이 오는 숲과 들판을 지나  
다시 아궁이 앞으로 돌아왔다  
이제 이 부엌과 정원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오직 그것만이 진실한 사실이었다

"겨울은 다시 도래하겠지요. 일고여덟 달 아니 네다섯 달만 지나도 어느새 겨울의 문턱입니다. 시간 참 빠르게 잘도 가네요. 순하게 가는 것 같은데, 현기증이 날만큼 순식간입니다. 세월 참 빨라요. 인생이 어떻게 이토록 번갯불에 콩 구워 먹으려고



잠깐 지핀 것마냥 훌쩍훌쩍 지나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하고, 노래하고, 이별을 맞았다 다시 만나는 겁니다. 마치 따사로운 봄날 햇빛처럼. 이런 게 인생이라고 가정한다면 말이죠. 그렇게 그들은 그러다 몇 번 더 저주를 퍼붓겠지요. 다시 뜨거운 포옹을 하는 겁니다. 사랑의 정점이야말로 뜨거운 용광로와 다름없을 테니. 각자 주인공들처럼 멋지게 사랑과 이별을 겪는 게 인생이라면, 뜬금없는 방향이긴 한데, 인생이란 원래 생겨먹은 거 자체가 뭔가가 주어지지 않은 채 시작되는 게임과 비슷하듯, 초심을 기억해야한다고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비워야 한다는 말을 전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네요. 숲 속에 버려진 왕관이 다시 부시시 일어나 일고여덟 달 뒤면 어기적어기적 다가올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겨울의 위력이 보다 위압적으로 설정됐기 때문일까요? 봄을 맞는 우리의 자세가 체계는 어떤지 살아 남은 자의 조출한 파티처럼 보였거든요. 뭔가를 대비해야 할 게 아니라, 소중한 무언가를 의연하게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보다 많은 시간과 열정을 비워야하지 않을까, 제 느낌은 그랬어요. 송찬호 시인의 미학에 사로잡혀 봄날을 거닐다 보니, 제가 좀 멀리 왔습니다."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 51,000명 이상의 사할린과 쿠릴 주민이 미래의 사회적 공간 선정에 투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주도하는 연방 기획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전 러시아 중간 투표결과가 발표되었다. 주내 11개 지역들에서 내년에 실행할 선도시획이 이미 선정되었다. 나머지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투표가 진행 중이다. 최종 결과는 5월31일에 발표된다.

투표에 유즈노사할린스크,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흠스크, 마카로브, 네웰스크, 우글레고르스크, 토마리, 티몴스크 및 유즈노쿠릴스크 지역의 주민들이 적극 참여했다. 이들 도시 주변들에서는 대체로 과반으로 선택된 환경정비 기획이 선정되었는데 최저보다 3배나 몇 배의 많은 표를 얻은 기획도 있다.

마카로브 지역에서는 3개의 사회적 공간 중에서 도심 해안가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가운데 투표에 1,100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했다. 아니와 지역에서는 득표수에 따른 격차가 적은 가운데 아니와의 스킨카 유치원 옆 사회적 공간은 트로이츠코예 구역의 소베츠키야 거리의 사회적 공간과 90표 차이로 처지고 있으나 투표 종료까지는 아직 17일이 남아 있어 상황은 바뀔 수도 있다.

투표는 4월 15일부터 5월31일까지 단일 온라인 플랫폼 65.gorodsreda.ru에서 진행된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에게는 선택 가능한 41개의 사회적 공간이 제시되어 있다. 각 도시 지역에서는 2 - 3개의 사회적 구역이 투표로 선정된다. 투표 절차는 아주 간단히 고스슬룩을 통한 등록으로 투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투표 방식은 투명성을 보장한다. 이에 자원봉사자들이 지역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해외 우수 한식당을 찾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 2023년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신청 접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식진흥원(이사장 임경숙)은 2023년도 하반기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5월 16일 밝혔다.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사업은 한식진흥법(2020.8.28. 시행)에 따라 한식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작됐다.

올해 1월에는 뉴욕, 파리, 도쿄 등에서 8곳을 첫 선정·발표했으며, 올 하반기 추가 지정을 목표로 지정 신청을 받는다.

사업 대상 도시는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일본 도쿄다. 지정 필수 요건은 ▲해당 국가에서 최근 3년간 한식당 경영 ▲주메뉴를 기준으로 한식 메뉴가 60% 이상 ▲최근 2년간 해당 국가의 위생 기준 미위반 등이다.

해당 조건을 충족한 해외 한식당은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이메일(goodhansik@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면 농식품부 장관 명의 지정서가 발급되며,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표시 현판 등이 제공된다. 아울러 국산 식재료 구매 비용과 홍보 등을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도 하반기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식 포털(www.hansi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외동포신문)

# 2023년 4월 사할린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2023년 4월 사할린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23년 3월 대비 100.37%, 2022년 12월 대비 100.98%에 달했다. (2022년 4월 물가지수는 2022년 3월 대비 101.62%, 2021년 12월 대비 -109.68%였다.)

올해 4월 식료품에 대한 소비자물가지수는 한 달 만에 99.74%로 나타났고, 이에 비해 지난해 12월에는 99.93%였으며, 비식료품류에 대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1.03%이고, 이에 비해 지난해 12월에는 100.36%였고, 서비스류는 100.36%이며, 이에 비해 지난해 12월에는 103.69%였다.

과채류의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포도 6.4%, 양배추 3.0%, 마늘 2.4%, 배 1.7%, 오이 1.6%, 감자 1.5% 상승했다. 반면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은 과채류로는 양파, 당근, 비트로 0.4%에서 0.7% 올랐다.

이와 함께 레몬은 7.8%, 토마토는 5.9% 가격이 하락했다. 지역 평균적으로 설탕은 1.5%, 밀가루 1.3%, 버터 1.0%, 해바라기유 0.5% 가격이 하락했다.

이에 비해 가격이 상승한 다른 식품류들은 과일주스가 4.2%, 가공치즈 1.9%, 소시지 1.6%, 유아용 조제분유 1.5%, 냉장 및 냉동 연어류 1.2%, 분쇄 생선살 1.1%, 코코아 1.0%로 나타났다.

반면 가격이 하락한 식품류들은 손질한 냉동생선(연어류 제외) 3.5%, 연유 3.1%, 훈제 소시지 2.1%, 마요네즈 1.5%, 냉동 통생선 1.4%, 소금 1.3%로 낮아졌다.

가전제품들의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냉장고 5.1%, 다리미 2.2%, 전기레인지 1.3%, 청소기 1.1%, 전자레인지가 1.0% 올랐다. 반면 가격이 하락한 가전제품들은 세탁기가 1.9%, 믹서기와 가정용 블렌더는 1.3% 하락했다.

생활전자제품 중 휴대전화기는 3.6%, 태블릿 컴퓨터는 2.2%, 무선 헤드폰은 1.3%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기록됐다.

비식료품류 중 생활필수품의 가격이 상승해 치약은 2.6%, 화장지는 1.3%, 애완동물 사료는 1.1%, 휘발유는 0.2% 상승했다.

서비스 업종 품목에서는 소비자금융 이용에 따른 이자율이 8.1%, 휴양 및 보건 서비스가 1.8% 올랐다.

해외 관광 서비스 품목도 오른 가운데 터키 여행은 8.4%, 자카프카지에 국가들 여행은 6.7%, 벨라루스 여행은 1.3% 올랐다. 동기간 가격이 낮아진 여행 품목은 동남아시아 국가

여행이 18.3%, 아랍에미레이트로 여행은 가격이 13.1% 낮아졌다. 반면 흑해 연안과 크림반도 여행은 18.6%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으로 기초생활식품세트의 가격에도 변동이 있었다. 기초생활식품세트에는 소비자들이 가장 자주 찾는 33개의 품목이 포함돼 있는데 기초식품세트의 한 달 소비 가격은 사할린주에서 2023년 3월에는 평균 8,274.97루블리, 전월 대비 0.3% 올랐고, 2022년12월 대비 2.6% 올랐다(2022년4월에는 8,346.03루블리로 한 달 만에 3.1% 상승했으며, 2021년12월 대비 13.8% 올랐다.)

2023년 4월 유즈노사할린스크 한 달 기초식품세트의 가격은 8,145.11루블리, 코르사코브는 8,323.77루블리, 포로나이스크는 7,939.37루블리, 오히는 9,196.23루블리였다.

사할린 통계국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Новости диаспоры

### День родителей отмети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13 мая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отпраздновали День почитания родителей,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м-канал «Корейский телеграф».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8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1-го поколения. Пожилых людей ожидал празднично накрытый стол, конце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В качестве подарка были вручены продуктовые наборы. Организаторы сообщили, что тем, кто не смог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праздничном мероприятии, подарки будут доставлены на дом.

### Сахалин посетил Генконсу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Ха Бён Кю

С 15 по 17 мая с визитом на Сахалине побывал Генеральный консул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г. Владивостоке г-н Ха Бён Кю. В рамках визита он встретился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зложил цветы к памятным местам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орсакове, Холмском районе.

16 марта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ск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работающими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образова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СМИ. На встрече были подняты вопросы по реализации Спецзакона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работе вновь созданного (реорганизованного из Фонда) Агентства(департамента) по делам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обсуждались вопросы расширения гуманитарных связе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ореей, организации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расширени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

### Сахалинцы плетут сети для СВО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ЮСМО-ОК) активно подключилась к помощи бойцам СВО. Женщины и мужчины плетут маскировочные сети для боевой техники. Большую помощь оказали городски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предоставили рыболовные сети безвозмездно.

Идейным вдохновителем этого проекта стала жительница портового города Холмска, соратник ЮСМО-ОК, получившая признание как «лучший серебряный волонтер области» Надежда Ким. Вместе со своими сподвижниками они призвали холмчан к акции «Всё для Победы!». Отправили в зону СВО первую партию маскировочных комплектов в количестве 20 штук.

По информации ЮСМО-ОК на 15 мая корейц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зготовили 3. К акции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и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Женщины активно включились в работу.

Сегодня многие люди выражают активное содействие очень важной миссии - помочь воинам России.

Обзор подготовила Виктория Бя

###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본사 편집부

## Трагические судьбы женщин-кореенок, репрессированных сталинским режимом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сталинского режима начались в период горбачёвской Перестройки и проводились в последующие десятилетия многими исследователями и историками. Они охватывают множество аспектов, включая причины, масштабы, методы, последствия и т.д. Первоначально историография запретной в СССР темы была сосредоточена на документальном исследовании и анализе архивных материалов, открытых в перестроечный период.

В последующие годы появились работы, основанные на исследовании мемуарной литературы и других источников. Современная историография сталинских репрессий характеризуется более широким подходом к проблеме.

Исследователи истории бывшего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уделяют больше внимания социальной и культурной истории периода сталинской диктатуры, массовой мобилизации общества в форсированном развитии экономики. Эти исследования основываются на анализе различных источников, включая архивные документы, мемуары, литературу, прессу, устную историю – oral history.

Однако достижения прежнего периода не исключаю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заполнения оставшихся обширных лакун и локальных белых пятен. Историография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усилилась рядом учёных, прежде всего историков, перестала быть tabula rasa (в древнем Риме чистая восковая табличка для записей стилусом, т.е. «чистый лист бумаги»), но до сих пор нет специально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трагических судеб женщин-кореенок, оказавшихся жертвами сталинского молоха.

В 1930-х годах в СССР была проведена масштабная кампания по репрессиям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по этническому признаку, которая не обошла стороной корейцев. В результате многие женщины-корейки были подвергнуты арестам, преследованиям и жестокому обращению со стороны советских властей. Часть из них была приговорена к высшей мере наказания – расстрелу, приведённому к исполнению, а другие – приговорены к длительным срокам заключения в лагерях и умерли там от тяжёлых условий жизни. Лишь немногие смогли выжить в нечеловеческих условиях.

Многих женщин в СССР, в том числе кореенок, арестовали и осудили по стандартным обвинениям, которые, как оказалось позже, не имели под собой никаких оснований. Одной из крупнейших групп репрессированных женщин были супруги и родственники «врагов народа», а также жены и дочери членов большевистской элиты, которые были убиты или умерли в тюрьмах и лагерях. Некоторые из них также были подвергнуты принудительной работе в лагерях или отправлены на вынужденные работы.

5 июля 1937 года было принято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олитбюро ЦК ВКП(б) «о членах семей осуждённых изменников родины» (сокращённо – ЧСИР). Согласно этому документу, все жены изменников родины подлежали заключению в лагеря на 5–8 лет.

Всех оставшихся после осуждения детей-сирот до 15-летнего возраста отправляли в детдома. Всего в 1938-1939 годах в СССР было арестовано и направлено в лагерь около 18 тыс. жен врагов народа. В связи с нехваткой мест в лагерях, постановление предписывало организовать специальные лагеря в Нарымском крае и Тургайском районе Казахстана.

Так, в начале декабря 1937 года было образовано Акмолинское спецотделение Карлага НКВД, который узницы спецлагеря называли АЛЖИР – Акмолинский лагерь жен изменников Родины.

В нем отбыли сроки заключения свыше 8 тысяч женщин, в том числе кореенка Цой Евгения Петровна, арестованная 28



февраля 1938 года и осужденная через полгода на 10 лет. Ее мать, Цой Мария Александровна, неработающая, плохо говорящая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собрала вещи в узелок, пришла в участок НКВД города Москвы и трое суток не уходила, пока ее дочь не написала от ее имени донос на себя. Так мать и дочь провели за колючей проволокой АЛЖИРа лагерный срок «от звонка до звонка». Через 20 лет Цой Евгения была реабилитирована. Она умерла 18 декабря 1999 г. на 82-м году жизни. О ней, пережившей все муки и отдавшей после освобождения все силы заботе и воспитанию маленьких детей, сняты документальные ленты, опубликованы газетные статьи.

В коллаже «Женщины-корейки, репрессированные сталинским режимом» есть фотография Цай Валентины Петровны (в первом ряду крайняя слева), осуждённой как «жена врага народа».

Она родилась в 1902 г. в Корее, ее отец был чиновником цар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Цай Валентина имела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в 1931 г. стала членом ВКП(б) и на момент ареста работала старшим инспектором правления Госбанка СССР, проживала в Москве. Ее арестовали 10 марта 1938 года и отправили в ИТЛ (исправительно-трудовой лагерь системы ГУЛАГ) как «члена семьи изменника Родины» сроком на 8 лет. Освобождена из мест лишения свободы 9 сентября 1944 года. Военной Коллегией Верховного Суда СССР от 28 марта 1957 года приговор отменен, дело прекращено за отсутствием состава преступления.

Во втором ряду крайняя справа – Югай Вера Никинична, 1906 года рождения, уроженка с. Крабб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края, гражданка СССР, из семьи рыбака, образование 6 классов, б/п, на момент ареста – санитарная сестра при столовой № 1 тормозного завода, проживала в Москве.

Арестована 9 февраля 1938 года как «жена врага народа». По постановлению Особого Совещания при НКВД СССР от 22 марта 1938 года заключена в ИТЛ сроком на 8 лет. По определению Военного трибунала Московск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от 30 сентября 1957 года реабилитирована.

В третьем ряду посредине Ким Те Хе, 1899 г. р., уроженка города Гензан, Корея, гражданка СССР, незаконченное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член ВКП(б) с 1921 года. На момент ареста работала редактором издательства «Иностранная рабочая», проживала в Москве. Арестована 28 января 1938 г. как «член семьи изменника Родины» и заключена в ИТЛ сроком на 8 лет. Весной 1957 года реабилитирована. Репрессии коснулись женщин-кореенок, которые были активны в трудовых коллективах или обще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ни часто подвергались обвинениям в «пособничестве японским шпионам», «передаче секретных сведений», «саботаже» и т.д.

Ким Мария, 1903 г.р., уроженка Кореи, гражданка СССР, вдова, неграмотная, до ареста проживала в корейской деревне Клерк Посьетского района. Она была арестована 20 мая 1937 года и в ее обвинительном заключении было записано: «Совместно со своим мужем... оказывала в своей квартире приют агентам японских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ов, со-

бирала и передавала им сведения шпионского характера и советские газеты». 2 сентября 1937 г. Ким Мария постановлением Тройки была осуждена к расстрелу.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 расстреле было приведено в исполнение 9 сентября 1937 г.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Ким Мария реабилитирована посмертно в 1989 году.

По такому же обвинению расстреляли Ли Марию, 1885 г. рождения, уроженку Кореи, гражданку СССР, неграмотную, беспартийную, домохозяйку, проживавшую до арест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Приговор был приведён в действие 9 сентября 1937 года.

Ким Софью Сергеевну, 1902 г.р., уроженку Владивостока, проживавшую до ареста в Москве, расстреляли 5 февраля 1938 года по обвинению «в шпионаже в пользу японской разведки». Она реабилитирована 19 апреля 1958 года. Ее тезка по фамилии и имени – Ким Софья, 1879 г.р., уроженка Кореи, домохозяйка, проживавшая в поселке Вяземский ДВК и осуждённая Тройкой, расстреляна 31 марта 1938 года в Хабаровске. Реабилитировали ее в 1989 году.

Ли Ген За, 1907 г.р., уроженка Манчжурии, домохозяйка, проживавшая в г. Николаевск-на-Амуре ДВК, расстреляна по стандартному обвинению Тройки 20 августа 1938 года в г. Хабаровске. Реабилитирована в 1989 году.

Ли Хе Сук, 1901 г.р., уроженка Кореи, швея Военторга, проживала в Хабаровске. Расстреляна по приговору Тройки 15 декабря 1938 года и реабилитирована в 1958 году со стандартной формулировкой – «за отсутствием состава преступления».

Мартиролог женщин-кореенок следует продолжить, чтобы воздать память всем безвинно погибшим, однако формат газетной статьи не позволяет это сделать.

Выявлено множество случаев осуждения женщин-кореенок к длительным срокам тюремного заключения. Обвинения формулировались по готовым шаблонам и осуждённые отправлялись в лагерь по всему Советскому Союзу. Архипелаг ГУЛАГ был велик и раскинулся по всей огромной территории СССР.

Женщины-корейки подвергались политическим репрессиям также на основании обвинений в «антисоветской агитации» и «контрреволю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екоторые осуждённые становились жертвами сталинской чистки в связи с политическими интригами и личными расчётами.

Отмечены случаи, когда женщины отправлялись в заключение или гибли как «жены изменников родины» – мужей ин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как Пак Сляр В.И. – в коллаже крайняя справа в первом ряду. Немало случаев, когда, наоборот, женщины и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стали жертвами репрессий или депортации 1937 года, так как их мужьями были корейцы. Случаи, когда жены и мужья иной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несли наказание, не отказываясь от своих избранников, – яркое свидетельство супружеской верности, близости, привязанности и порядочности.

Учёные продолжают изучать историю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прессий сталинского режима, в том числе и репрессированных женщин. Их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зволяют более полно понимать масштабы насилия, применённого к советскому обществу в течение десятилетий, и помогают сохранить память о безвинных жертвах. Трагические судьбы женщин-кореенок, расстрелянных и осуждённых на долгие годы лагерного заключения, ждут своих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Герман КИМ, д.и.н., профессор, директор Института азиат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КазНУ им. аль-Фараби.

Источник: Корё ильбо. 19 (1866)

12 мая 2023 года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В РК отменяются почти все карантинные ограничения

В июне степень угрозы коронавируса будет снижена с максимального уровня «Опасность» до «Осторожность». Одновременно срок карантина для заражённых сократится с семи до пяти дней. При этом карантин станет не обязательным, а рекомендуемым.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выступая 11 мая на заседании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стихийным бедствиям и катастрофам, объявив тем самым об окончании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выразил удовлетворение тем, что жители страны возвращаются к обычной жизни после начала пандемии более трёх лет назад. Отменяется также рекомендация о проведении ПЦР-теста в течение трёх дней после прибытия в РК. Статистика новых случаев COVID-19 будет предоставляться не ежедневно, а еженедельно. Количество коек для заражённых сократится, а контроль за эпидем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ей перейдёт от цент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о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ю стихийным бедствиям и катастрофам к министерству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Между тем, сохранятся масочный режим в стационарах больниц, а также бесплатная вакцинация, диагностика и лечение заражённых. Президент поблагодарил медицин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благодаря усилиям которых страна сумела преодолеть пандемию, и жителей страны за поддержку карантинных мер. Недавно Всемир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тменила статус пандемии для COVID-19.

## В РК объявлены новые тарифы на электроэнергию и газ

15 мая утверждены новые тарифы на газ и электроэнергию. Соглашение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достигнуто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и правящей партией Сила народа. Как сообщил министр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орговли и энергетики РК Ли Чхан Ян, с 16 мая тариф на электроэнергию повышается на 8 вон за кВт/ч, а на газ - на 1,04 воны за мегаджоуль. Из расчёта на семью, состоящую из четырёх человек, потребляющую в среднем 332 кВт/ч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в месяц, расходы вырастут на 3.000 вон (2,47 доллара). Расходы на газ могут вырасти на 4.400 вон (3,29 доллара). Между тем, нынешнее повышение тарифов не решит проблем энергетических компаний. Более того, РК будет долго страдать от последствий повышения мировых цен на энергоносители. Операционный дефицит Корейской электро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корпорации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превысил 6 трлн вон (4,5 млрд долларов).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накопленный дефицит достиг 38,5 трлн вон (28 млрд 800 млн долларов). Дефицит Корейской газовой корпорации составил 11 трлн 600 млрд вон (8 млрд 600 млн долларов).

## В РК сократился объём денежной массы

Объём денежной массы сократился в РК в марте этого года на 0,2% по сравнению с февралём. По данным,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12 мая Банком Кореи, M2 - ключево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индикатор,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показателем денежной массы - составил в конце марта 3 квадриллиона 810 триллионов 400 миллиардов вон или 2 трлн 800 млрд долларов. M2 включает банковские долговы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со сроком погашения менее двух лет, наличные деньги, депозиты до востребования и ценные бумаги, которые легко конвертируются в наличные.

## В школах РК будет протестирован новый формат занятий

Со второго семестра этого года в трёхста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школах в тестовом режиме начнутся занятия на основе программы с применением технологичного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разования, школы получат от министерства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ую и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а также помощь в подготовке персонала. Вышеуказанные школы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в формировании инновационной модели школьных занятий на основе программ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Courseware, созданного частными компаниями и профиль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ведомствами. Изначально проект планировалось реализовать на базе только семи региональных департаментов образования. Однако в процессе отбора был обнаружен высокий спрос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й на скорейшую цифровизацию учебного процесса. Поэтому колич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проекта было увеличено.

## Музей «Хоам» представит ретроспективу абстракциониста Ким Хван Г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музей «Хоам», управляемый Фондом культуры Samsung, представит ретроспективу корейского мастера-абстракциониста Ким Хван Ги (1913-1974). На выставке под названием «Точка, небо\_ Ким Хван Ги», которая пройдёт с 18 мая по 10 сентября, будут представлены около 120 работ художника, относящегося к авангарду корейского абстракционизма. Это как известные, так и редкие работы художника. Кроме того, посетители выставки увидят архивные материалы, а также предметы из его коллекции, в том числе, керамику, альбомы для рисования и письма. Предстоящая выставка прольёт новый свет на 40-летнее творческое путешествие Ким Хван Ги, которое объединило корейскую традиционную красоту с западными техниками живописи.

(RKI)

##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Ульсане прошёл фестиваль китов. Как с этим мероприятием связаны русские промышленники?

Расположенный на юго-восток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крупный город Ульсан известен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как огромный промышленный и экономический центр. Здесь большой порт, а также сосредоточены крупнейшие автомобилестроительные, судостроительные и нефтехимические производ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Известные всему миру автомобили Hyundai, а также гигантские танкеры производятся во многом в Ульсане, где местная верфь и автомобилестроительный комбинат являются крупнейшими в мире.

Однако этот город известен не только своим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ми комплексами, которые, без сомнения, впечатляют своими масштабами, но и как давний центр китового промысла. Изображения китов появились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и ещё пять-шесть тысяч лет назад в виде наскальных рисунков, так что этих морских животных видели в этих краях очень и очень давно.

У истоков становления современной китобой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стояли россияне. В конце XIX века Россия создал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и три базы, откуда китобойные суда вели промысел. Главная из них - Тихоокеанская китобойная компания - появилась в 1891 г. в бухте Чансэнпхо, которая сейчас находит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овременного Ульсана. Так, с "лёгкой руки" россиян, Ульсан стал корейским центром китобойного промысла, а кит превратился в один из главных символов города. В 1970-х гг., когда пришелся пик развития корейского китобойного промысла, в Чансэнпхо базировалось около 20 китобойных судов, а в бухте жили около 10 тысяч человек,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которых была так или иначе связана с этой сферой.

Конечно, сейчас увидеть китов в окрестностях Ульсана считается большой удачей, хотя корейцы уже достаточно давно прекратили истреблять этих морских животных.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к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венции по охране китов и не ведёт их промысел с 1987 года. Однако здесь прекрасно помнят исторические корни, а потому с 1995 года в Ульсане проводится фестиваль китов - единственный в стране. В этом году он прошёл уже в 27-й раз, стартовав 11 мая. Своего рода главным центром мероприятий является та самая бухта Чансэнпхо, где когда-то появилась первая современная китобойная компания.

Администраци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округа Намгу Ульсан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торого расположена бухта Чансэнпхо, организовала поездку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журналистов, чтобы познакомить с городом, фестивалем и китами. В эти дни в городе царит особая атмосфера праздника, наслаждаться которой приезжают туристы со всей Кореи и из других стран. Тольк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на этот фестиваль приехало около полумиллиона гостей, а в нынешнем власти хотят поставить своего рода рекорд по посещаемости.

Главным центром фестиваля является собственно бухта Чансэнпхо, откуда регулярно отходят прогулочные катера. Если повезет, то получится увидеть дельфинов, а может даже и китов -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на это многие очень надеются, хотя, конечно, появление кита в местных водах сейчас является уже целым событием.

Обязательно стоит посетить расположенный неподалеку "Музей китов Чансэнпхо" - единственный в Корее музей, посвященный исключительно этим морским животным, а также китобойному промыслу. Музей постоянно расширяется, обновляется, добавив в свой



На фестивале китов в Ульсане.  
Фото: Олег Кирьянов/РГ

состав еще один корпус с 2018 г. Побывав в нем, вы получите прекрасное понимание о том, какие бывают киты, как они живут, как развивалась история промысла животных в Кореи и почему они требуют особой охраны и защиты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огружением в атмосферу 1960-70-х гг., когда, напомним, китобойный промысел в Кореи был в самом разгаре, можно насладиться в специально созданной в 2015 г. "Китовой культурной деревне" - в ней хорошо воссоздана атмосфера той эпохи, со всеми магазинчиками, улочками и прочим антуражем. Желающие могут даже взять в аренду и сфотографироваться в южнокорейской школьной форме образца полувекковой давности.

В этой же культурной деревне история интересным образом переплетается с будущим и самыми современны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Тут же расположен Whales Fantasiom - демонстрационный центр, где при помощи самых последних визуаль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эффектов показываются видеопрезентации, посвященные китам.

Своего рода кульминацией фестиваля является костюмированный парад на "китовую тематику", который состоялся в субботу 13 мая. Помимо этого, в программу мероприятия включены концерты, различные шоу, народные состязания, ярмарки, которые длятся с утра и до позднего вечер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выразили надежду, что как корейские, так и иностранные туристы будут почаще посещать их город, который, как подчеркнули чиновники, "знаменит не только заводами и верфями". "Ульсан - это, конечно же, промышленный центр, с которого началось знаменитое корейское экономическое чудо. Но в нашем городе хватает природных и культурных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ей. У нас есть много чего посмотреть - прекрасное побережье, пляжи, недалеко есть горы, кроме того, у нас богатая и насыщенная история, погрузиться в которую можно в том числе за счет регулярно проводимых фестивалей. Фестиваль китов, безусловно, одно из крупнейших культурных событий такого рода", - отметил глава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округа Намгу Ульсана Со Дон Ук, приглашая всех посетить их город и фестиваль.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 Ульсан, РГ)

## Экономят даже на питании

Сеул, 11 мая – ИА РУСКОР

Все больше и больше южнокорейцев затягивают свои пояса дома, чтобы накопить деньги на поездки за границу.

Цены на авиабилеты выросли примерно на 20 процентов по сравнению с допандемическим периодом, но только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этого года крупнейшее южнокорейское туристическое агентство Hana Tour посетило 258 000 человек, что уже превысило прошлогодний показатель в 226 000.

В компании Mode Tour продажи премиальных пакетных туров, рассчитанных на 25 человек, выросли с трех процентов от общего объема продаж до пандемии до 15 процентов сейчас,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они стоят на 20 процентов дороже обычных.

30-летний офисный работник из Пучхона к западу от Сеула, отправился в Японию на пять дней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месяца и потратил более 1 миллиона вон (US\$1 = W1 338). Дома он обычно тратит 600 000 вон в месяц,

поэтому он потратил почти вдвое больше своего месячного бюджета. «Я очень экономный и обычно питаюсь в одиночестве в закусочных, но я хотел достойно провести отпуск, остановившись в отеле в городе и питаясь в прекрасных ресторанах», — сказал он. 28-летний житель Сеула сказал: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я ездил в Европу на 11 дней и потратил 150 000 вон на экскурсию по винодельне и питание в ресторанах с рейтингом Мишлен».

Другие сокращают питание вне дома большую часть недели, но выделяют один вечер, чтобы разориться. 27-летний мужчина из Соннама к югу от Сеула, сказал: «Я сократил выпивку с двух вечеров в неделю до одного, но когда я все-таки выхожу куда-нибудь, я предпочитаю дорогой ликер по 20 000 вон за бутылку вместо соджу». А 29-летний офисный работник из Ханамы, провинция Кенгидо, сказал: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я сэкономил почти 400 000 вон на соджу, пиве и других расходах и потратил эти деньги на покупку бутылки виски премиум-класса».

## 18 сельских семей в Поронайском районе переедут в новостройки в этом году

В селе Майском приступили к строительству девяти двух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для переселенцев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Кроме комфортных квартир со свежим ремонтом, сельчане получат также земельные участки. Поронайский район – один из немногих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где новостройки по областной программе расселения возводят в селах.

Дома в Майском строятся по монолитной технологии, к достоинствам которой можно отнести высокую прочность и, как следствие, сейсмостойчивость. Новостройки сдадут «под ключ» – с чистой отделкой, сантехнически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электроплитой и водонагревателем. За каждой квартирой закреплены участки для садоводства или подсобного хозяйства.

В домах – по две квартиры (16 трехкомнатных и 2 двухкомнатные), в которые будет выполнен отдельный вход. Новоселье жители Майского должны отпраздновать уже к концу года. Все они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не переселяться в город, а остаться в родном селе.

– Мы очень много лет прожили в Майском, вырастили детей, уже есть внуки. С нетерпением ждем, когда в нашем селе заверши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ых домов. Следим за ходом стройки. Конечно же, они не сравнятся с нашими старыми «аварийками»! Мы рады, что нам предостав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остаться на своей земле и получить здесь новое жилье, – поделилась будущий новосел Светлана Мельник.

Строительство развернулось около месяца назад. Подрядчиком выступил местный индивидуальный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

– Сейчас ведем основные работы – устраиваем фундаменты, бетонируем вертикальные конструкции, подводим инженерные коммуникации. В домах будет централизованное водоснабжение, системы водоотведения и отопления – автономные. Котлы – твердотопливные с возможностью отопления от электричества, – рассказа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одрядчика Дмитрий Олешко.

Поронайский район – один из немногих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де для переселения людей из аварийного жилфонда возводят жилье в сельски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Как рассказал первый вице-мэр Поронай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Виталий Пенкин, в 2021 году в селе Малиновка ключи от комфортных квартир получили 10 семей. В 2023 году новоселье в Гастелло отметили 24 семьи.

Поронайский район сохраняет темпы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для расселения аварийного жилфонда. В этом году в райцентре должны сдать три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а: на улицах Совхозной и Советской – на 60 квартир, на улице 40 лет ВЛКСМ – на 30 квартир.

Напомним,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лидеров в России по расселению аварийного жилфонда. Результаты этой работы отмечены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олучил из бюджета РФ более 10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на расселение людей, а в этом году была одобрена финансовая поддержка в размере 6,1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До конца 2026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новоселье должны отпраздновать еще 24 тысяч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Для ускоренного решения этого вопроса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тройки развернуты в каждом район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Сахалински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отмечают улучшение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между властью и бизнесом

В 2022 году от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бизнеса поступило 180 обращений. Благодаря налаженной обратной связи между властью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им сообществом большинство проблемных вопросов решаются 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м порядке. Сегодня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ходит ТОП-5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с наиболее благоприятным инвестиционным климато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на островах сами дали такую оценку, отметив снижени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давления на бизнес и значительное ускорение подключения к инженерным сетям.

Результаты работы за год на встрече с губернатором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представил уполномоченный по защите прав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дрей Коваленко.

–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обращения от бизнеса стали разбираться в досудебном порядке. Раньше почти треть из них заканчивалась в суде, сейчас – меньше 5 процентов. Это результат большой работы по налаживанию обратной связи между бизнесом и властью. Большинство проблемных моментов получают решения на рабочих группах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просы, которые требуют особого подхода, решает лично глава региона, – отметил Андрей Коваленко.

Создано шесть рабочих групп, где разбираются вопросы выдачи разрешений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лицензий, подключения к энергоресурсам, снижения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давления, получения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услуг, поддержк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Проблемы, требующие особого внимания, выносятся на совет п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торый каждый месяц проводит глава региона.

– Мы не должны оставлять без внимания ни одно обращение от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У нас есть ресурсы, чтобы поддержать малый, средний и крупный бизнес, особенно в условиях антироссийских санкций. Предпри-

ниматели тоже приходят нам на помощь, когда нужно позаботиться о семьях, оказавшихся в трудной жизненной ситуации, или сахалинских защитниках на Донбассе. Поэтому власть должна делать все, чтобы бизнес чувствовал себя комфортно,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могут задать волнующие их вопросы на специально созданной платформе обратной связи «Бизнес.Сахалин.онлайн». В прошлом году большая часть обращений затронула тематику транспортных перевозок, ЖКХ, налоговых правоотношений, антимонопольного регулирования, земельных и имуще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й. Значительно уменьшилось число запросов по снижению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давления на бизнес.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явилась также новая тематика – защита прав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попавших под частичную мобилизацию.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на постоянной основе ведется работа по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е субъектов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бъемы помощи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Сахалинского фонда развит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и областного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выросли почти вдвое и превысили 1 миллиард рублей.

Работу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по созданию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й для бизнеса высоко оценили сам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просов,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няла пятое место среди всех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рейтинге состоя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Результаты рейтинга способствуют развитию конкуренции в борьбе за инвестиции между регионами.

## Исполняющим обязанности рек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назначен Александр Самардак

Ново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вуза 12 мая представили коллективу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Приказом министра науки 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сполняющим обязанности ректора назначен Александр Самардак.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вел с ним двустороннюю встречу и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расширенном заседании ректората СахГУ.

Александр Сергеевич Самардак – коренно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 житель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До нынешнего назначения занимал пост проректора по научной работ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У доктора физико-математических наук за плечами огромный опыт науч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отечественных и зарубежных научных центрах. В 2020 году Александр Самардак стал победителем суперфинала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Лидеры России» и вошел в топ-10 победителей по треку «Наука». Он выпускник «Школы губернаторов» программы Высшего кадрового резерва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Ф. Закончил Академию Управления ДВФУ и «Школу ректоров».

– Рассчитываю, что такой опыт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сможет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решить новые задачи в развитии вуза. Впереди много работы. Одна из крупнейших задач – довести до финала проект по созданию кампуса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оторым мы занимаемся совместно с университетом. Впереди большая и масштабная стройка. Но это лишь внешняя часть процесса обновления университета. Он должен стать современным и передовым научно-учебным заведением. Необходимо вернуть его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для молодых островитян. Для этого предстоит пересобрать учебные программы, привлечь лучших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и внедрить новые методики. СахГУ должен стать одним из якорных вуз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Задел для этого сейчас создается, но многое, безусловно, зависит от новой управленческой команды университета,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Кампус – это отлична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днять уровень образования. Наша задача готовить кадры не только для области, но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целом. Безусловно, будем развивать в вузе подготовку специалистов для нефтегазовой сферы, отраслей, связанных с климатом, технологиями, биотехнологиями. Считаю необходимым усилить инженерную подготовку для строительной сферы. А для этого предстоит поднять в вузе фактически на новый уровень физику, математику и химию. У студентов в кампусе должна быть возможность не только получить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но и вести передовые науч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месте с тем важно создать для студентов гармоничную среду, в том числе с возможностями для хобби и занятия спортом. Я очень рад, что мне предста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возглавить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ниверситет. Надеюсь, что мой опыт и научные знания позволят нам вместе с вами нарастить потенциал вуза и сделать его одним из лучших в стране, – обратился к коллегам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рек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Александр Самардак.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ректората глава региона вручил благодарности губернатор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вшему ректору СахГУ Марии Ганченковой.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благодарил ее и команду вуза за большую работу, результатом которой стал ряд проектов.

После состоялось совещание с заместителем министра науки 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видеоконференцсвязи, который поздравил ново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СахГУ.

– Александр Сергеевич человек хорошо известный в мире науки 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он доктор наук, доцент. Автор более двухсот научных публикаций, с боль-

шим опытом работы в сфере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в том числе в зарубежных вузах. Человек, прошедший серьезную кадровую школу,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науки и высше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етр Кучеренко. – Министерство возлагает серьезные надежды на вас. Первоочередные задачи – обеспечение работы вуза на должном уровне и организация предстоящей приемной кампании. Ну и, безусловно, развитие университета. Желаем вам успеха.

## Сахалинских медицин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проверяют на знани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этики

Специальные занятия организуют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ого базов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колледжа. Там будут разбираться случаи грубого отношения к пациентам, некачественного и несвоевременного оказания помощи. Такое решение приня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результате встреч с сахалинцами с онкологическими и эндокринологически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работы над ошибками будут приглашать специалистов, на которых жалуются сахалинцы, и главные врачи учреждений, где они работают. Если отношение к пациентам не изменится,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ся жесткие кадровые решения.

– К пациентам нужно относиться так, будто это заболели родные и близкие люди,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Благодаря различным механизмам обратной связи ни одна история, когда с человеком обошлись несправедливо, не останется незамеченной.

На одном из последних личных приемов дочь пациентки из Углегорска поделилась, что ее мама болеет раком. Пенсионерке месяцами не выписывали препараты, без которых она постоянно страдает от боли. Также в 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е не выполняли предписания областного онкологического диспансера.

– С нами провели телемедицинскую консультацию, назначили противоопухолевую терапию. Но на месте эти рекомендации проигнорировали. Обезболивающие приходится каждый раз выпрашивать. Пока я не обратилась на горячую линию, углегорская медицина просто бездействовала, – рассказала женщина.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 центральной 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е пройдет служебная проверка. Пациентку на дому осмотрит паллиативный врач. Кроме того, запланировано госпитализировать пенсионерку в областной онкодиспансер, чтобы подобрать подходящее обезболивание и провести противоопухолевую терапию.

На встрече к главе региона обратилась также мама ребенка с сахарным диабетом. Семью волнует вопрос обеспечения расходными материалами для инсулиновой помпы. В день приема мальчику выписали рецепт на три месяца и выдали все необходимое.

Напомним, глава региона каждую неделю проводит встречи с пациентами, где 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м порядке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жизненные ситуации людей с серьезными заболеваниями и принимаются адресные решени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ботают горячие линии: +7-914-759-30-80 (по вопросам оказания онкологической помощи), +7-962-580-97-66 (по вопросам оказания эндокринологической помощи), +7-962-110-63-55 (по вопросам оказания онкологической и эндокринологической помощи).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ступили к поднятю затонувших судов со дна моря

Работы начались в акватории порта Невельск, а также вблизи сел Озерское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и Зырянское – Холмского. До конца 2024 года должны ликвидировать 52 объекта затонувшего имущества, что позволит устранить негативное влияние брошенных судов на экологическую ситуацию в регионе.

По поруч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пециалисты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транса и капитаны портов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ровели инвентаризацию затонувшего имущества, сформировали перечень объектов, определенных к первоочередному подъему. На сегодня заключены контракты на удаление судов в Корсаковском, Невельском, Холмском и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ом районах, до конца года утилизируют 26 судов.

– Работы в Невельске, Озерском и Зырянском ведутся с опережением календарного графика. Параллельно выявляются новые объекты затонувшего имущества, для этого используются беспилотные летательные аппараты, – рас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транспорта и дорож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ксим Жоголев.

В Холмском районе в этом году приступят к подъему траулера «Аскания». Большое судно село на мель у берегов Сахалина 30 лет назад, оно находится в затрудненном для подъема и утилизации местоположении. Длина траулера составляет 107 метров, ширина по ватерлинии – 15 метров, а водоизмещение останков судна – 6,5 тысяч тонн. Поэтому было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утилизировать его в два этапа, работы должны завершиться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 Правильно, что начали избавляться от «кладбища» судов. Ржавые развалины портят эстетический вид наших бухт. И сахалинцы, и туристы смотрят на этот металлолом,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жительница Невельска Надежда Ильина.

Напомним, реализация проекта «Генеральная уборка» инициирова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рамк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Охрана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인천 대표 영화제 '디아스포라' 재외동포청 유치 열기 쪽~

인천시와 (사)인천영상위원회는 19~23일 인천 중구 인천아트플랫폼과 애관극장에서 '제11회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연다.

제11회 디아스포라영화제에는 ▶디아스포라 장편 ▶디아스포라 단편 ▶디아스포라 인 포커스 ▶디아스포라의 눈 ▶시네마 피크닉과 같은 사전 온라인 상영작품을 포함해 전 세계 27개국 작품 88편을 상영작으로 선정했다. 개막식은 배우 조민수와 아나운서 김한 사회로 19일 오후 7시 30분 인천아트플랫폼 야외무대 현대의 광장에서 진

행한다. 개막작은 '어웨이'를 상영한다.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올해로 11회를 맞은 인천을 대표하는 영화제로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하는 아시아에서 유일한 영화제이기도 하다. 더욱이 이번 영화제는 인천이 재외동포청 유치를 성공한 열기를 이어가리라 기대된다.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이주 역사와 다양한 이야기가 깃든 인천에서 영화로 차별과 편견으로 소외받는 이들의 다양성과 관용의 가치를 나누려고 기획한 영화제다. 750만 재외동포를 이어주는 거점으로서 '인천'이 세계 초일류

도시로 도약하는 데 한 축을 담당한다. 영화제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기념해 ▲인천에 사는 고려인·새터민 초청 ▲사할린 동포 단체 관람 ▲하와이한 미연합회와 한미재단 하와이지부(하와이 국제영화제) 간담회로 재외동포가 참여하고 연계하는 데 노력했다. 시는 앞으로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상영작 예매와 부대 프로그램 사전 예매는 19일 오후 2시까지 디아스포라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기호일보)

# [우리말로 깨닫다] 한류와 한글박물관 그리고 한국어 공동체

이럴 줄은 세종대왕께서도 상상도 못했었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글로 글을 씁니다. 우리말이 중국과 달라서 자기 뜻을 쉽게 펼칠 수 있게 한글을 만들었는데, 이제 세계 사람들이 한국어를 알고 싶어서 한글을 배웁니다. 한글은 자연스럽게 세계를 향한 글자가 되었습니다.

한류는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적, 문화적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중에서도 한글에 미친 영향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한국의 노래와 드라마, 영화를 좋아해서 한국에 오고 싶어 하고, 한국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한국어 교육의 열기는 중국이나 몽골, 베트남 등을 지나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유럽, 남북미, 아프리카까지 펼쳐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물론 한류가 널리 퍼질수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문화는 상호적이기에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언제든지 혐오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세계 속에는 한국어가 문화유전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흐르는 피가 몸의 유전자라면, 한국어는 문화유전자의 핵심입니다. 특히 재외동포에게 한국어는 그대로 문화의 피입니다. 한국어를 할 수 있고, 한글을 쓸 수 있는 재외동포와 그렇지 않은 재외동포와는 많은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0주년을 맞은 재외동포신문에서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한국어 공동체를 선언하였을 겁니다. 한국어와 한글은 우리 민족을 이어주는 깊은 이해의 끈이 될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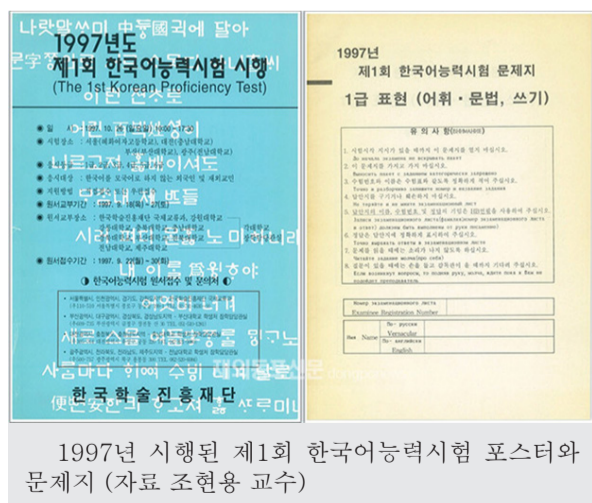
우리나라에는 한국어와 관련된 특별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바로 국립한글박물관입니다. 한 나라에 그 나라의 문자를 중심으로 만든 박물관은 거의 없을 겁니다. 국립한글박물관에는 다양한 한글 유물이 있습니다. 한글박물관을 갈 때마다 한글에 대한 사랑이 깊어집니다. 특히 박물관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볼 때는 뜨거운 감동도 올라옵니다. 한글 사랑이 세계로 넓어집니다. 한글로 나라이름을 쓴 티셔츠 같은 기념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한글이 중요한 우리의 문화 브랜드입니다.

박물관에는 소장품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에 박물관 관련 공부를 하는 학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재미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에서 열심히 수집해야 하는 소장품은 아주 옛날 것만이 아니라, 최근에 시작된 것이라는 말이였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타자기, 휴대전화 등의 경우에 초기 모델은 이미 희귀한 물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글 박물관에는 어떤 소장품이 필요할까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 답은 외국인에게 가르치는 한국어 교재나 시험지 등입니다.

그런데 이미 초기의 한국어 교재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외국의 한국어 교재는 찾기가 더 힘이 듭니다. 러시아나 일본, 중국, 미국 등의 한국어 교재도 열심히 찾아보아야 합니다. 북한의 한국어 교재나 외국의 북한어(조선어) 교재도 잘 찾아놓아야 할 겁니다.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한국어 능력시험 1회 문제나 포스터를 구하는 것도 이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어 관련 학술지의 1집도 다 모아놓으면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귀한 자료입니다.

저

는 한국어 자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능력 시험 1회 문제나 포스터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1997년 시행된 제1회 한국어능력시험 포스터와 문제지 (자료 조현용 교수)

(출처: 재외동포신문)

# 14년차 맞은 경기행복학습마을, 11개 시군 14개 마을서 운영

경기도는 교육 소외지역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기행복학습마을 사업'이 올해로 14년째를 맞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 행복학습마을 사업'은 한센인,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자 등 교육 소외지역의 정책적·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기도만의 평생교육 특화모델이다.

지난 2010년 포천 장자마을을 시작으로 현재는 한센인 정착촌에 4개소, 사할린 동포촌에 4개소, 기타 교육 소외지역 6개소 등 총 14개 마을이 운영 중이다.

지역별 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14개 마을에 총 5억 9천7백만 원(

도비 1억 7천9백1십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은 마을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체험학습 포함), 마을 컨설팅비 등에 사용된다.

경기 행복학습마을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마을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등이다.마을 특성 반영 프로그램은 한센인 정착촌에서 한센병 완화를 위한 예방 및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할린 동포촌에는 한국문화(역사), 한국어 교실 초급·중급, 한국무용, 건강 댄스 등을 운영한다.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은 '교육 이수-지역사회 행사 및 축제 참여'의 교육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교육 수혜 대상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기여하는데

목적을 둔다. 가평 반딧불마을은 하모니카 교육 운영으로 외부 행사 축하 공연 진행, 오산 죽미마을은 김장 담그기 및 송편 빚기, 안산 고흥마을은 건강 댄스팀이 최고령 팀으로 지역축제에 참여하는 등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도는 설명했다.

조태훈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내년에는 기존 지원 사업 이외의 교육복지에서 소외된 지역을 신규마을로 발굴해 행복학습마을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개인이 삶의 의미를 찾는 동시에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함께한다는 공동체 정신 함양을 기를 수 있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더 고른 기회'가 실현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북부시민신문)

# 한국 중소기업 컨소시엄, 카자흐스탄 업체와 한국의 수직형 인도어팜 구축 계약 체결

지난 5월 12일 카자흐스탄 수도 알마티 라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한국 중소기업 컨소시엄과 카자흐스탄 그린웰 간의 계약 체결 모습 (사진 전상중 재외기자)K-Pop 열풍에 이은 K-뷰티, K-푸드 등 한류가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중앙아시아에 K-스마트팜 바람이 일고 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인공지능기술로 작물을 재배하는 스마트팜 기술이 한국 중소기업들에 의해 카자흐스탄에 상륙했다.

스마트팜은 ICT를 접목해 작물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자동으로 관리해주며 작은 공간에서도 대량생산이 가

능한 최첨단 농장이다.

셀포트(주)(대표 강세명), (주)신강 등 한국 중소기업 6개사 컨소시엄은 지난 5월 12일 카자흐스탄 수도 알마티 라트 팔래스호텔에서 카자흐스탄 그린웰(대표 타라노프 아나톨리비치)과 한국의 수직형 인도어팜 176평 규모(187만4000달러)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

셀포트(주)는 스마트 인도어팜 구축에 제일 중요한 핵심기술인 공조시스템을 구축하는 한국E&C의 자회사다. 상추 등 다양한 품종의 작물을 재배하는 기업으로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꾀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그린웰은 이미 고르

다이 지역에서 4헥타르의 한국형 온실과 아크아 포닉스 시스템을 도입해 카자흐스탄의 농업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카자흐스탄 고르다이농장의 스마트팜 농장 모습 (사진 그린웰)이번 계약 체결은 한국 중소기업 협업으로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를 'K-스마트팜 수출 원년'으로 삼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글로벌 스마트 농업 시장 규모는 2020년 374억달러에서 2025년 571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민주평통, 21기 해외 자문위원으로 글로벌 우수인재 영입 추진

과학·기술·문화·예술 등 분야 막론하고 각계에서 탁월한 성과 인정 받은 인재 영입키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사무처장 석동현)는 제21기 민주평통 동포위원으로 각계각층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룬 재외동포 글로벌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로 했다고 5월 17일 밝혔다.

영입 대상자는 과학·기술·의료·경제·문화·예술·체육·금융·법률 등 분야를 막론하고 각계에서 탁월한 성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인사나 차세대 인

재 등이다.

세계 각국에서 분야를 막론하고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현재 활발하게 역량을 펼치고 있는 재외동포 인재들을 대령의 통일정책 자문위원으로 특별 위촉해 긍지를 느끼게 해주고 그들의 에너지와 통일의 동력으로 잇고자 함이 이번 결정의 취지라고 사무처는 설명했다.

재외동포 우수인재들은 공관장의 추천 또는 사무처장 제청 방식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자천(自薦)이나 추천 방식 관련 사항은 관할공관이나 민주

평통 사무처(smlim1402@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이제 한반도의 안전과 통일문제는 단지 군사·안보,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노력만이 아니라 언뜻 통일이슈와 관계가 멀어보이는 IT나 AI 등 과학·기술 분야, 문화·체육 분야에서도 한인동포 인재들이 능력을 발휘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면, 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증대되면서 통일도 앞당겨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шли в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ом футбольном комплексе ЦСКА и собрали более 7000 участников из 52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За три дня состязаний сахалинцы получили две золотые, шесть серебряных и четыре бронзовые медали.

В общекомандном зачете первенства Росси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заняла третье место, уступив Москве и Краснодарскому краю. Кроме того, 40 спортсменов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рсакова и Холмска были приняты в сборную команду страны. Некоторые из них также выполнили норматив кандидата в мастера спорта.

Президент Федерации черлидинга и чир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ристина Лях отметила, что это замечательный результат, учитывая высокую конкуренцию в этом виде спорта в России. В скором времени пары сахалинских спортсменов отправятся на всероссийские соревнования в Новосибирск.

## <건강한 세대> 사회적 자선기획에 사할린 주민들을 초대

개인 맞춤 식이요법과 영양학 대학에서 시작된 <건강한 세대> 첫 길잡이 기획이 러시아의 지역들에서 그 활동을 전개한다.

소아과 의사, 내분비학 의사, 식이요법 전문가, 영양학자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건강한 생활방식, 음식에 대한 의식적 선택, 자녀의 육체적, 심리적 발달, 면역력 형성에 대한 모든 문제들에 답을 제공한다. 무료 보건교육 프로그램은 가이드와 방법론가들의 실험으로 작성된 가장 실제적인 주제들에 따른 250개 이상의 가르침과 체크 리스트, 온라인 일지를 포함하고 있다. 최대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앱과 웹사이트가 제공되며, <https://zdorovoe-pokolenye.ru/>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프로그램 덕에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한 건강한 표준식을 설계할 수 있고, 장래에 건강한 미래를 안겨줄 건강한 생활방

식의 습관을 조성하고 촉진할 수 있게 된다.

온라인 방식의 교육은 러시아 어느 지역에서든 참가자들이 수업 일정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в социальный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ый проект «Здоровое поколение»

Первый пилотный проект «Здоровое поколение», запущ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ом персонализированной диетологии и нутрициологии, начинает свою работу в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педиатры, эндокринологи, диетологи и нутрициологи предоставляют ответы на все вопросы о здоровом образе жизни, осознанном выборе пищи, физическом и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ребенка и формировании иммунитета.

Бесплатная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более 250 уроков по самым актуальным темам, созданные экспертами гайды и методички, чек-листы и онлайн-дневник. Для максимального удобства пользователей был создан сайт и приложение, которые можно скачать по ссылке.

Благодаря программе родители смогут построить здоровый рацион питания для своего ребенка, активно формировать и стимулировать привычки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что в дальнейшем даст ему здоровое будущее. Онлайн-формат обучения позволяет участникам заниматься из любой точки России и не зависеть от расписания занятий.

## 사할린에서 유치원생들 달리기 대회 열려

5월 13일(토) 스파르타크 경기장에서 유치원의 원생들 대상으로 제13회 사할린주 스파르타키아드 3번째 단계가 열렸다. 육상경기에 유치원생 78명이 참가했다.

육상선수 총비서인 알렉산드라 톨스티히나는 육상 바이애슬론 경기에 기록적으로 13개 팀이 참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경기 메달을 놓고 유즈노사할린스크를 비롯해 아니와, 네 웰스크, 홈스크, 코르사코브, 돌린스크, 노글리키 지역의 유치원생들이 경쟁을 치렀다.

유아들은 30m와 1km 달리기 두 개 종목에 참가했다. 유아들에게 1km 경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참가자 모두가 완주하여 모두 메달을 받았다.

경기 결과 '젬추주나' 유치원팀이 우승했고, 은메달은 '알료누쉬카(유즈노사할린스크)' 유치원이 획득, 동메달은 '웨스누쉬카' 유치원이 차지했다.

유치원생들을 위한 육상경기는 4단계로 되어 있다. 앞서 유아들은 종합 체력 훈련, 스키대회에서 경쟁을 치렀고 마지막 단계로 일본식 미니 배구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 Самых быстрых детсадовцев определили на Сахалине

Третий этап XIII Спартакиад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реди воспитанников дошколь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состоялся 13 мая на стадионе «Спартак».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легкой атлетик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78 юных спортсменов,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Как рассказала главный секретарь спартакиады Александра Толстихина,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ому двоеборью заявилось рекордное количество команд — 13. За медали состязаний боролись воспитанники детских садов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Анивского, Невельского, Холмского, Корсаковского, Долинского и Ногликского районов.

Ребята пробежали две дистанции: 30 метров и 1 километр. Второй забег стал для дошколят настоящим испытанием, но каждый из них благополучно финишировал и получил за это медаль участника.

Команда из детского сада «Жемчужина» стала победителем соревнований. Серебро забрали воспитанники «Алёнушк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Бронзовые призы — ребята из детсада «Веснушк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партакиада среди воспитанников дошко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четыре этапа. Ранее дети по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общефизической подготовке и лыжных гонках. Завершающим этапом станут состязания по японскому мини-волейболу.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 полугодие 2023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606 руб. 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욱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8-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